

寶林寺鐵造毘盧舍那佛坐像再指定申請은 現地調査키로

三、其他

(1) 서울市에서 文廟、東廟、彰義門 等 實測製圖計劃報告接受

(2) 史蹟圖錄編輯委員選出

金庠基, 李弘植 兩委員

◎ 文化財委 第一分委 小委

日 時一九六三、四、一八

場 所 文化財管理局

出席人員 金庠基, 李弘植, 申局長 代理, 許文化財課長 代理, 李營繕係長, 慶

北道文化課長, 金文化係長, 柳監督官

議決事項

(1) 監督官의 權限을 더욱 強化한다

(2) 中央監督官은 黃壽永, 金元龍으로 한다

(3) 學術的 記錄要員을 確保한다

(4) 物資檢受에는 監督官의 最終承認을 받을 것

◎ 文化財委 第一分委(四次)

日 時一九六三、四、三〇

場 所 文化財管理局

出席人員 金庠基, 李弘植, 金斗鍾, 金載元, 金元龍, 鄭局長, 李文化財課長

韓管理課長

議決事項

(1) 石窟庵工事

小委議決事項을 採擇

前室木架構의 石柱는 木柱로 한다.

(2) 南大門工事 追加補助 百萬원은 派出所 移轉을 條件으로 承認

(3) 佛國寺 四天王門 建立 申請 否決

(4) 寶物六八號 係時揚旋閻碑 現位置에서 五m 北方으로 移建하는 申請 承認

(5) 在日文化財(外銀製七層塔——和歌山縣高野山寺刹, 銅製鐘——同高野山大

第四卷 第五號 通卷三十四號

學入口버거리)

調査, 韓日會談代表에게 委任

(6) 龍頭寺址鐵幢竿保護柵設置 保留

◎ 韓國大學博物館協會聯合特別展示會

同協會의 一九六二年度事業으로 各大學에서 出品한 一三七點을 가지고 四月二十일부터 五月五日까지 梨花女大博物館에서 特別展示會를 가졌다.

◎ 北漢山窯址踏查

지난 五月五日 國立博物館 美術課에서는 崔淳雨 鄭良讓 兩氏가 萬景臺 東等約 3km 地點의 道洗寺가마를 踏查하여 多數의 象挾青磁破片을 採集하였는데 南北을 長軸으로 하는 傾斜面 約五百坪에 達하는 一帶가 同窯址로 確認되었다.

◎ 高大博物館特別展示會

開校五十八週年記念行事의 하나로써 高大博物館에서는 新收藏品 및 未公開所 藏品等을 五月五日부터 十一일까지 特別展示하리라 한다.

◎ 南大門 竣工

一九六一年七月二〇日 着工한 南大門重修工事は 總工事費 壹仟九百餘萬원으로 三年間에 걸친 工事が 完了되어 五月十四日 竣工式을 舉行하였다.

印度通信(五完)

(뉴·델히에서)

黃 壽 永

三月一日 새벽에 三·一節을 맞이하는 故國의 모습을 그리면서 에로라石窟을 머났습니다. 이곳 西印에는 아잔타·에로라의 兩大石窟 以外에도 중요한 불교석굴이 많이 있어 그중에는 年代가 더욱 오래고 構造와 彫刻으로 注目할 만한 것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고루 찾기 위하여서는 많은 時間이 있어야 하

므로 봄베이에 이르는 沿線에서 아우랑가발과 나시크의 兩窟과 봄베이를 중심심으로 에레판타, 칸헤리, 마자 카—라의 순서로 이름난 석굴만을 찾아다녔습니다. 이들은 모두 岩山中腹以上에 四·五個에서 百이 넘는 大小의 塔窟과 僧院窟을 연속시켰는데 이들이 모두 古代都市와 그들을 연결하던 貿易路와 깊은 관련을 맺고 造營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에레판타만이 힌두教窟인 바 봄베이港外의 小島에 있어 규모와 조각에서 代表作이 될만 하였으며 나시크와 바자의 兩窟은 紀元前後의 작품이어서 初期樣式을 보여주었습니다. 塔窟로서 감명깊었던 것은 카—라窟이었는데 入口의 彫飾이나 柱頭의 動物像들은 그것만으로서도 모두 優品이었습니다. 이곳 窟內 中央에 奉安된 圓塔頂上에는 당초의 土造傘蓋가 보존되어 있어서 天井과 窟戶의 木造樣式과 더불어 注目되었습니다. 印度石窟이 在來의 木造建築을 忠實하게 모방하면서 出發한 點은 우리나라 石塔이 또한 木塔을 模範에서 發生한 事情과 서로 닮았다고 하겠읍니다. 約十日間 이들 石窟을 찾아다녔을 때는 氣溫이 上昇하고 있어 登山하기에 힘이 들기도 하였으나 窟內는 모두 서늘하여서 이같은 風土에서 石窟이 流行한 까닭도 짐작이 되었습니다. 多幸히 이들 石窟調査에는 考古局職員과 同行이 되어서 큰 困難은 없었습니다.

三月九日 南印을 向하여 봄베이를 떠났읍니다. 車中에서 밤을 새우고 다음날 이른 아침에 中印의 雄都인 하이드라바드에 이르러 하루 쉬어가기로 하였습니다. 이곳에도 博物館과 回教建築物가 있어 돌아보았사온데 마침 日요일이어서 商街는 문을 닫고 있었으나 힌두教의 祭日인 듯 男子들이 머리와 원옷에 靑紅의 물감을 드리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모습은 奇異하였읍니다.

三月十一日 아침 七時 버스로 다시 南下하여 크리슈나大河를 건너 午後四時경에 나가루추나판다에 이르렀읍니다. 이곳은 紀元直後부터 七、八世紀間 南印佛敎의 中心이어서 寺塔이 많기로 유명한데 地名은 高僧인 龍樹菩薩에서 由來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완전히 廢墟로 化하였으며 더우기 進行中인 大規模의 塼工事が 完成되는 二、三年 뒤에는 水中에 잠겨버린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작은 博物館과 遊牧民이 小數 남아 있을 뿐 적막한 內陸의 故都이었습니다. 이곳 博物館長이 舍宅의 방하나를 비어주었기에 다행이었사온데 이곳에서의 二泊은 이번 여행을 통하여 가장 괴로운 고비가 되었습니다. 해가 지면서부터 旋風이 일어나 요란한 소리를 내는데 무덤기는 비할바 없으며 칩대 옆에 불등을 놓고 밤새도록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새웠읍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중요한 寺塔址가 散在하고 있으며 일찌기 大塔을 장엄하였던 彫刻石도 수습되어 있어 印度美術史上이

를 만난 곳입니다.

當局은 數年來 塼工事와 併行하여 이같은 遺跡과 遺物을 굴발하여 왔으며 그중 重要한 一部를 山頂에 옮겨 놓았읍니다. 그리하여 新築된 박물관을 비롯하여 移置된 塔殿址들을 모두 돌아 보았는데 이와 같은 收拾策이나마 마련된 것은 감명깊은 일이었습니다. 멀지 않아 이곳 新博物館은 湖水 속에 孤立된다고 하는 바 이곳 一帶는 印度의 새로운 觀光地로 登場할 것이 틀림 없을 것입니다. 水中에 잠기기에 앞서서 이곳을 찾아온 나의 幸運을 博物館長은 거듭 말하여주었으며 完工後에 다시 찾아 오라는 부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三月十三日 아침일찍 이곳을 떠나 버스便으로 군물을 경유하여 夕陽에 아마라바티에 당도하였읍니다. 이곳 또한 크리슈나河 下流에 자리잡은 古都로서 일찌기 佛敎가 융성하던 땅인데 특히 大塔址에서 발굴된 紀元後 二、三世紀의 우수한 조각으로 이름난 곳이기도 합니다. 翌日은 이곳 博物館長의 인도로서 塔址와 그 옆의 작은 陳列室을 보았으며 또 發掘中인 城址를 찾기도 하였습니다. 이 날 午後이 곳을 떠나 군물을 經由하여 비자야와다에서—칼자타—마드라스 急行車로 三月十五日 아침에 마드라스에 이르렀읍니다. 이곳은 印度 四大都市의 하나로서 이번 여행의 終點이기도 합니다. 海岸에 건설된 이 都市는 樹木이 울창하여 아름답습니다. 그리하여 十八日에 이르는 三日間 주로 博物館을 찾아서 彫刻室 그중에서도 이곳에 옮겨진 아마라바티大塔의 彫刻을 주목하였으며 하루는 考古局의 안내로서 남쪽의 잔지푸람과 마하파리푸람을 찾아 巨大한 印度敎寺院과 石窟과 磨崖彫刻 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곳의 踏查로써 印度 여행의 스케줄이 모두 끝났읍니다. 夕陽길을 海岸을 따라 北上하는 車中에서 一月以來의 艱難의 結果가 있었다고 自信하면서 만족과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四月十五日)

南大門通信 (完)

金正基

南大門重修工事は 木部組立工事が 四月十三日에 完了되고 屋蓋工事は 申榮勲氏의 專任監督下에 趙元濟氏가 都給을 맡아 三月七日부터 四月五日 사이에 完